오늘 공과는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여인입니다.

다 같이 성경 열왕기하 4장 8절 ~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공과의 제목은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여인입니다.

예전에는 공과의 제목이 아이를 살린 엘리사 그렇고 되어있었는데 이번에는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여인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전에는 포인트가 엘리사에게 맞춰져있었는데 이번 제목은 수넴여인에게 맞춰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넴여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은 8절로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넴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데 있어서 아무런 사심이 없이 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남에게 사심 없이 섬기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무언가를 남에게 대접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구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가끔 동료들하고 밥을 먹을 때 신발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낼 것이냐 남이 내주면 좋겠는데 내가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잖습니까?

근데 다들 신발끈 매고 있으면 내가 내야겠다 그러고 한 번 내가 냅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음식을 같은 사람이 내게 되면 상당히 음식값 내는 사람이 불편해지죠

마음이 그래서 그 별로 안 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밥먹으러 가기가 조금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서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 것을 아들과 나누는데 있어서 불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월급날 참고 참고 있다가 월급 받았으니까 한 번 먹자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아들 현수가 그날따라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버티다가 남 아껴먹는 것을 두 점 세 점씩 꿀떡꿀떡 삼키면 아들이라도 상당히 미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놈이 돈도 한 푼도 안 버는 주제에 먹기는 내 두 배를 먹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세상일에서도 이런 게 많죠

요즘도 인사청탁을 위해서 고위층 아내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고 뇌물을 주고 뇌물을 준 대가로 어떤 직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얻은 직책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그 직책에 앉았을 때 뇌물을 받기도 하는 그런게 보편적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한 여인 수넴여인은 특별한 사심이 없이 단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엘리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죠 엘리사는 사실 굉장한 고위층이었습니다.

여기 13절에 나와있는 것처럼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즉 인사청탁을 나에게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의도로 엘리사를 대접한 게 아니라는 거에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엘리사에게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이 그 사람을 대접한 유일한 이유이다.

왜 내가 형제자매를 대접해야되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심없이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혹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처럼 어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접하거나 혹은 아예 대접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한 모습이 되겠죠.

사심없는 봉사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잘못된 예로 사심이 있는 봉사, 섬김 혹은 아예 섬기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모습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어떤 관원이 있는데 그 관원이 한 백성을 초청을 해서 음식을 먹게 할 때 좋은 음식을 베풀었다고 해서 허겁지겁 막 예의 없이 먹지 말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니까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지만 3절에 보면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라 그랬는데 또 간사 동기에서 베푼 식물도 실제로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식사나 함께 하시지요 라고 해서 갔더니 단지 식사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간사한 동기가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만일 간사한 동기가 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 나도 그 진찬을 탐하지 말아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덥썩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목에 칼을 두라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관원에 대한 예를 갖추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간사한 식물에 대해서는 거절하라는 그런 쪽으로 교훈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접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아예 대접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요한 3서도 한 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위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를 쓴 목적 자체가 형제를 영접하라 대접하라 그리고 대접하지 않는자를 책망하라 그런 동기로 성경 자체가 쓰여졌거든요?

디오드레데 같은 사람은 아마 자기 교회에 온 순회 전도인한테 대접도 안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도 내어쫓고 그랬나봐요

지금도 각 교회에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주일에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식사도 같이하고 여비같은 것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여비를 줘야되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여비가 뇌물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대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어쫓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접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형제 자매를 대접하고 그리고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일 때는 대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결혼하고 나면 대접하기가 조금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끼리 결혼했다라면 사실은 그것도 굉장한 축복이고 그 축복을 입은 가정답게 가정을 많이 개방하고 집에서 된장국에 밥 한끼라고 대접하면서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집에 초청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음식들을 잘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그런 음식들 가지고 대접하기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형제자매라면 평소에 먹는 밥인들 사실 밥먹으려고 가겠습니

까? 우리가?

있는 반찬에 김치에 된장국이라도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정성을 다 해 먹을 수 있다라면 그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 차리려고 할 것도 아니고 뭐 없으면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것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 대접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알고 있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교회 안에서 결혼한다라면 그게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면 그것이 수넴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함으로써 바라지 않았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바라지 않았던 상급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넴여인은 상급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닌데 바란 것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라고 누구를 대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접하는 면면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항상 집에 저희를 초청하는 데 예전에 그 대학 때 라면만 끓여 줬어요

자취했거든요

그런데 꼭 라면을 먹기 전에 이야기를 하죠

라면 먹을 때 기도할 거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할 게 내 동생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라면 잘 먹겠습니다라는 기도와 어울러서 내 동생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 더해서 해달라고 꼭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라면 한 그릇 주면서 그런 청탁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동생 구원 받았습니

다.

그래서 그런 바라고 대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큰 걸로 갚아주는 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대접한 여인들의 이름들도 나와있고 사도 바울을 대접한 사람들의 이름도 다 나와있고 기록되어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비록 우리 옆에 사도 바울은 아닐찌라도 예수님은 아닐찌라도 그 예수님의 영을 담고 있는 형제자매를 대접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겠죠

성경 마태복은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34절에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세 명의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을 거고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 명의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비밀도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혹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코흘리개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 예수

님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대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접할 때 잘못된 자세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잘못된 동기로 대접하는 거죠

대접뿐 아니라 봉사도 마찬가진데 잘못된 동기로 대접하거나 봉사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마 예전에는 헌금을 할 때 나팔을 한 번 뿌 분다음에 헌금을 했나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헌금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 또 뒤에 나와있는 기도 이런 것은 남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남이 모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남이 모르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정말 몰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제 알리면서 했다라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알리면서 한 이유가 뭐냐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었다는거에요

높임을 받고 싶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구한 것이 사람의 높임을 받는 거였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고 니가 뭘 원하느냐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대로 주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사람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수넴여인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대접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이를 주셨죠

몇 배로 받은 겁니다.

은밀한 봉사, 남에게 알리려고 하는 봉사가 아닌 남에게 영광받고 남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봉사가 아닌 정말 순수한 접대 또 대접 봉사 이런 것들이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하라고 했으니까 내일도 우리 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광주권 수련회여서 몇 교회에서 오시는데 그들 역시 손님이니까 우리가 합당한 예절로 잘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돌아가보겠습니다.

4장 14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수넴여인은 그 위에 보면 8절에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지위도 상당히 있고 재물도 상당히 있는 사람 같습니다.

부귀가 있는거죠 남을 대접하는 게 당시에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야 때는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겨우 가루 한 움큼에다가 기름 조금가지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을 대접할 수도 있고 방을 지을 수도 있고 필요한 도구를 챙길 수도 있다라면 상당히 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여인이었는데 다 좋았죠 믿음도 굉장히 좋은 여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또 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을 잘 설득해서 “이 남자를 대접합시다 엘리사를 대접합시다”라고 무난하게 설득도 하고 또 뒤에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대처한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절제 되어있고 침착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부귀영화가 다 있고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아이가 없었죠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십자가는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어려움이 한 가지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갖춘 사람은 없죠 은사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은사를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만약 모든 은사를 다 갖췄다면 동역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자란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부족한게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구하게 되겠죠

히브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게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되고 놀림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굳이 아이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가 없었을까? 뭐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런건 아니죠?

왜 없었을까?

성경에 보면 가끔 아이가 없는 여인이 가끔 나옵니다.

사라같은 경우에 아이가 없었죠 사라는 90세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라는 아이가 없었고 체념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것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늙고 우리 남편도 노쇄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겠느냐고 그냥 웃고 체념을 했죠

근데 그게 사라의 죄는 아니었고 잘못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아이를 줌으로써 사라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웃는다 그랬잖습니까

90세 때 아이낳고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능의 하나님을 알게 된거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라헬은 사라처럼 포기하거나 체념한 게 아니라 투기를 했죠

그래서 나로 아이를 낳게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이제 화를 버럭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아이를 너한테 낳게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라헬은 정말 괴로워서 그런 말 했을 겁니다.

결국 라헬이 잘못되서 그런게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주신 아들이 요셉이었죠

열두지파의 구원자가 된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이는 없다가 낳은 아들 이삭이 되었고 라헬에게는 없다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대적 브닛나를 통해서 굉장히 격동을 받았는데 울면서 한나는 기도했죠

대처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체념하기도 하고 투기하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한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자라고 불리우는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보면요

아이를 주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더디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일이 있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점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잖아요?

직장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가정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가족후원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자녀문제로 고민하기도 하고 주변에 보면 그런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세상 천년왕국과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나 만약에 그것이 다 갖춰져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없었고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아이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랐죠

나중에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결국 어머니 품에서 죽었습니다.

20절입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눈 앞에서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게 굉장한 고통이겠죠

자기 부모님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열왕기하 4장 21절~22절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원래 아이가 죽으면 대부분 통곡을 하겠죠

굉장히 아마 극도의 고통이 오고 그리고 정신을 아마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낙담도 하고 울게 되고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 다음엔 장례를 준비하게 되겠죠

이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잃지도 않았고 통곡하지도 않았고 장례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음 속에 고통이 있었던건 분명하거든요

뒤에 보면 엘리사의 발목을 잡았을 때 게하시가 물리치려고 하니까 "그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중심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이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느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다는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믿었을까?

예전에 엘리야가 아들을 한 번 살렸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머물렀다는 것도 알았겠죠 그리고 자신이 구하지 않은 아들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해서 엘리사가 또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는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엘리사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장에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맨 뒤에 보면 여자들은 믿음으로 죽은 아이를 부활로 돌려받았다고 되어있는데 그 여자가 아마 이 여자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이 살아날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장례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달려갔죠

엘리사에게 두 번째로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방황하게 되죠 굉장히 위급한 상태에서 방황하거나 당황하게 되면 일을 많이 그르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설명하거나 의논하거나 하지 않았죠.

남편의 믿음보다 자기의 믿음이 훨씬 나았나봐요

아마 남편한테 이야기했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삭을 바치러간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처럼 이 남편에게 죽은 아이 살리려고 엘리사에게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행동이었을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 않고 그냥 평안이니이다 하고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또 그는 지체하지 않았죠 천천히 하자 조금 시간을 두자라고 하지 않았고 굉장히 급한 마음을 먹고 달려갔습니다.

거리가 약 12.5km정도 그 거리가 상당히 되는 십 몇키로쯤 되는 거리였거든요?

24.145km 그정도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죽은 아이를 살리려는 급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게하시가 달려나와서 질문했을 때도 게하시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엘리사에게 갔고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에게 갔죠

의사에게 간 것도 아니고 엘리사에게 달려갔으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이 가능하지 의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는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올바른 사람에게 갔고 엘리사가 자기와 함께 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 다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지팡이를 주고 데려가라고 했지만 수넴여인은 그 지팡이 가지고 만족하진 않았죠

이 수넴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자세도 이와 같아야된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엘리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실제로 전도상담하는 전도자의 자세를 교훈을 받아야되겠죠

수넴여인이 인도자라면 엘리사는 전도 상담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수넴여인같은 마음을 가져야될 겁니다. 첫째는 분명히 살아날거라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도 있어야겠죠

상의할 만한 사람과 상의하고 그렇지 않다라면 시간을 낭비할게 아니라 또는 잘못된 상담으로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곧바로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면 달려가서 그 일을 해야될겁니다.

굉장히 급하게 마음먹고 달려갔죠

그래서 전도도 사실은 시간을 보고 천천히 하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급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다가 또 안 되면 잠깐 틈을 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되겠지하는 체념같은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저같은 경우도 저희 가족들 전도할 때 처음에 굉장히 급하게 마음먹고 전도를 했었거든요

저희 형이 처음에 전도했는데 저희 형은 91년 9월에 구원받고 교회 좀 다니다가 10월부터 교회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월부터 전도했거든요?

1월부터 전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고 저희를 볶았습니다

하루도 안 뺐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만큼 밥먹으려고 하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놈이 밥이 넘어가냐?”

“잘려고하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놈이 잠이 오냐? ”

“성경에는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고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되어있는데 오늘 주님 오시면 너는 남는데 어떡할래?”

이런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1월에 전도해서 1월에 저희 막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제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생이 군 방위 받으려고 8월에 내려왔는데 9월에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어머니가 12월인가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제 아버지 한 분 남았는데 아버지는 조금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밀어붙일 때는 1년만에 다 됐는데 이제 어느정도 됐다 생각하고 조금 뒀더니 아버지 전도하는 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때도 급하게 마음먹고 달려들지 않았다면 더 시간이 지체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투자하다보면 1년 2년 3년이 쉽게 가고 10년 15년이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급한 마음을 먹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급한 마음뿐아니라 정말 그 끈질긴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엘리사 다리를 붙잡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지팡이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지팡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보는데 멀리서 상담을 요청하면 그럼 일단 한 번 비

디오 테이프를 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상황이 정 없어서 비디오밖에 전도수단이 없어서 비디오를 본다라면 그것도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런데 다 있는데 그냥 비디오 보시죠 그리고 나중에 죄 듣고 난 다음에 상담합시다.

그러면 아무 능력없는 지팡이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디오가지고 전도하는 것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편안하게 비디오 봅시다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수넴여인은 지팡이를 게하시가 가져왔지만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엘리사에게 매달렸죠

그래서 엘리사가 결국 일어나서 갔고 그래서 결국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넴여인이 전도하는 것들을 천천히 살펴본다면 그 안에서 지혜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급한 마음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끈질긴 마음도 발견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확실한 믿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엘리사의 태도를 통해서 전도상담인의 마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게하시는 가서 시킨대로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 게하시의 태도와 엘리사의 태도의 차이점이 있다는거죠

이 게하시는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몸에 지팡이를 올렸어요

그러고나서 안 살아나니까 그냥 그대로 서 있었죠

아마 이제 잘못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만일 저같은 사람에게도 엘리사같은 사람이 이것을 죽은 사람 위에 올려놔라 그러면 정말 그냥 올려놓고 아무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하고 그냥 서 있을 수 있을 것같아요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시키는대로 했으니까

내가 해야할 것은 다 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뭘 하라는 말이냐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부모의 마음하고 즉 그 수넴여인의 마음하고 게하시의 마음하고 차이가 있죠

수넴여인은 어떻게든 살려야된다 게하시는 내 아이 아니니까 또 이미 죽은 아이니까 시키는대로 했는데 내가 뭘 더 해야되냐 마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마치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여인의 마음이 달랐던 것처럼 마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이 게하시에게 없죠 또 열정이 혹 있다고 할찌라도 시키는대로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안 되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될까 근데 뭘해야될지 또 잘 모르죠 훈련이 안 되어있는거죠

이 방법을 해봤는데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써볼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해본 경험이나 훈련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냥 지팡이만 올려놨죠

엘리사의 뜨거운 몸이 죽은 아이의 몸에 올라갔을 때 심장과 심장이 맞대어졌을 때 그 뜨거운 마음과 심장이 죽은 아이의 몸에 전달이 되어서 결국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게하시는 그냥 지팡이 올려놓고 말았으니 다른게 없죠?

아마 훈련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혹은 그래봤자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나겠는냐라는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게하시 마음 속에 탐심같은 것도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았을 때 그 탐심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그 탐심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었는데 그런 탐심이 아마 이 가운데 또 있어서 게하시가 더 이상 어떤 것을 하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게하시가 특별하게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게하시에게 그 믿음이라든지 열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나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그런 열정은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만한 지혜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게하시같다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죠

훈련이 안 되거나 열정이 없다라면 32절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

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기 엘리사가 한 일이 나오죠

그 몸을 아이의 위에 올려세웠습니다.

아이는 몸이 작죠

그런데 엘리사는 몸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몸이 아이 위에 올라가면 사이즈가 안 맞죠

그런데 그 손을 그 손위에 그 눈을 그 눈에 그 입을 그 아이 입에 자기 몸을 그 아이의 몸에 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른인 엘리사가 아이처럼 된거죠

그랬을 때 영혼이 살아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되신 분이잖습니까?

그랬을 때 온 세상에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대로 꼿꼿하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감동감화시키기는 어렵죠

내가 그 사람처럼 되었을 때 나의 따뜻한 심장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할 때에 그 때에 그 영혼에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른의 몸 어른의 마음 어른의 말투를 가지고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아이처럼 되어야지 아이가 나처럼 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처럼 되었을 때 그때 무언가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뜨거운 마음이 아이에게 통했을 때 그 아이가 한 번에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일곱 번 재채기 하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1학년이라면 1학년처럼 6학년이라면 6학년처럼 그 아이의 입장에 서서 그 아이의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그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해야겠습니다.

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무언가 변화가 생기고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말 잘 한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얼마나 말을 잘 하길래 그럴까해서 그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데요

그 분이 시장통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내용이 아주 그 말투도 천박하고 사투리도 쓰고 세련되지 못했길래 굉장히 무시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시장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왜그랬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시장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 또 자주 하는 말, 일상생활 속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처럼 되어서 전도를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예전에 그 문둥이 성자 다미안인가요?

그 책도 있었는데 문둥이 마을에 전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드려주지 않길래 결국은 그 마을에 살면서 동일한 문둥이가 되어서 그

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아이처럼 우리의 자세를 낮춰서 그들을 전도할 때 또 그들을 가르칠 때 조금의 변화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칩니다.

명언이 하나 있더라고요

말이 가면 말이 움직이고 마음이 가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가야 영혼이 움직인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갔었을 때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아이에게 가야 변화가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대접한 수넴여인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우리 주변에 주신 동역자들을 섬기게 인도하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아무 사심없이 그들처럼 되어서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주시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게 하여주시고 더욱더 아이들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아이들과의 만남 또 오후에 있을 권역별 수련회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